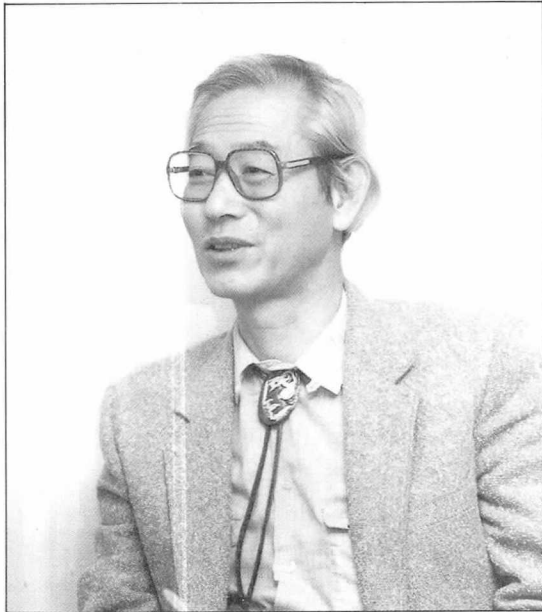


說話의 신비한 세계 표현한 說書集

이야기그림책 「서울說書」 펴낸 김기혁씨



그림과 글을 동시에 독자들에게 내용으로써 잊혀져가는 서울의 옛 모습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그를 화백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영문학자라고 한다. 그가 바로 남간(南澗) 김기혁(金基赫)(57)씨다.

그는 고려대 영문과 교수로 20여년간 봉직하며 국내 최초의 토플책 등 영어교재를 30여종이나 펴내기도 했지만, 81년 1월 교직을 떠난 이후부터는 자신만의 그림세계에 들어가 '설화(說書)'라는 분야를 개척해왔다.

이번에 김기혁씨가 펴낸 「서울설화(說書)」(범우사)는 서울 정도 600년을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출간되었다는 이유로 화제를 모을 만하다. 하지만 정작 이 책이 주

목을 끄는 것은 설화(說書)를 주제로 한 강렬한 색채의 그림과 거칠지만 감칠맛나는 글솜씨에 있다. 「서울설화」는 한양 명당 또는 서울 풍수와 어우러져 생성된 고도(古都)로서의 문화예술과 하늘이 내려준 뛰어난 주위경관, 자연 속에서 천진무구하게 삶을 누리던 선인들의 정감을 그림과 글로 담아놓은 책.

글과 그림으로 서울 옛 풍경 생생하게 묘사

“설화(說書)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왔고,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화나 전설이니 민담을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화는 우리의 꿈이면서, 과학입니다. 상상세계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바로 설화(說

話)입니다. 제 그림은 설화의 세계를 느낌으로 전달해주는 이야기(說書)입니다.”

모두 118점에 이르는 김기혁씨의 그림은 암사동의 옛 삶터, 송악산 목멱산의 설화, 경복궁에 얽힌 이야기, 승례문과 혜화문의 고아함, 종묘제례 등을 비롯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강렬한 색감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공을 초월한 서울 이야기에 젖게 한다. 그 강렬한 색채는 또한 꿈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하기에 충분하다.

‘인경종과 도성팔문’(표지 그림)과 ‘저잣거리’는 종각과 그 주변의 풍경이야기. “파루 종이 울리면 만백성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인경종을 치면 썰물이 빠지듯 천만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던 큰 종의 위력”이 황소처럼 느껴진다. 독자들은, 김기혁씨가 글과 그림으로 풀어놓은 상상의 꼬트머리를 잡고 저잣거리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수 있다.

별려서 펼쳐입은 아낙네의 부산스런 발걸음, 마포에서 방금 떼어 온 새우젓, 해장국에 막거리 한 사발, 굴뚝쭈시개 징소리, 알사탕을 붙이 붙거지라 물고도 어미의 치마를 끌며 성화를 부리는 아이들, 꼬맹이에게 질세라 었치기로 내기를 걸고 토막낸 옛구멍을 후후 불며 깔깔거리는 패거리들….

그림을 시작하면서 김기혁씨는 태초의 역사를 쫓아 물 속에서부터 출발, 물고기와 개를 그리는 어해도(魚蟹圖)에 몰입했다. “6, 7년간 어해도를 그리다가 물으로 기어나와서는” 호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88년에 다시한번 탈바꿈을 하는데, 기법면에선 담채에서 농채로, 내용면에선 일정한 대

상이 아닌 이야기를 담은 설화(說書)로 나아가게 되었다. 농채기법의 그의 그림은 “소가죽 한 장의 무게가 될 정도로” 진채물감을 덧칠해야 발색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담채보다 더 많은 기운을 그림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가죽 한 장 무게의 그림

김기혁씨는 설화를 원시설화·기원설화·불교설화·민중설화의 네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고 있다. 김기혁씨가 설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설화의 전달력이 다른 그 무엇보다 생생하다는 데 있다. 설화를 통해 산재한 우리의 정신을 한 데 모을 수 있고,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설화의 특성상 일반인들의 독해력도 빠른 편이라는 것.

지난 73년 부인 정숙희씨와 미국 휴스턴에서의 부부전을 비롯해, 83년 어해(魚蟹)전, 85년 화호(畫虎)전, 87년 비호(飛虎)전, 88년 설화(說書)전을 연 김기혁씨는 프랑스 전국조형미술협회에서 주최한 1백주년 기념전에 참가해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어렸을 때는 동대문박 신설동에서 살았는데, 50년대까지만 해도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청계천에서 붕어·송사리 천렵도 하고, 안암동에 즐비하게 늘어섰던 소나무들, 보문동 개천….”

청계천에서 썰매를 타던 한 소년이 자라 내놓은 「서울설화」는 서울 정도 600년을 마감하면서 옛 서울을 복원하고 있다. 그의 복원력은 강렬하면서도 환상적이다.

—이성수 기자

- 임종국선집 제 1 권
친일, 그 과거와 현재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신국판/7,000원
- 韓國儒學思想史(古代·高麗篇)
최영성 저/신국판/10,000원
-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
김윤식 지음/신국판/13,000원
- 詩話, 사랑 그 그리움의 샘
박을수 지음/신국판/7,000원

-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조기영 저/신국판/9,000원
- 韓國古小說批評資料集成
류탁일 편/신국판/15,000원
-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94 문화체육부 우수도서 선정)
한국고소설연구회 편/신국판/12,000원
- 韓國文學에 끼친 中國文學의 影響
위옥승 저, 이해산·우래제 공역/신국판/11,000원

- 中國詩歌藝術研究(下)
원행패 저, 박종혁 외 공역/신국판/10,000원
- 韓國 道教文化의 位相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신국판/13,000원
- 趙緯韓과 崔陟傳
민영대 저/신국판/11,000원
- 韓國文苑
조소양 편저/신국판/18,000원